

한국어 모음대립의 기능부담량과 음운변화

진 남 택

서울대 언어학과 박사과정수료/동경대학교 언어학과

1. 머리말

본고는 한국어의 모음간에 나타나는 대립의 정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음운변화의 한 요인으로서의 기능부담량의 역할을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.

기능부담량(functional load)은 언어현상을 대립과 기능의 관점에서 설명한 프로그 학파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에서 음운론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로 적용된 개념이다. 넓은 의미에서 기능부담량은 어떤 언어단위 또는 대립의 이용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측정방법과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.

본고에서는 기능부담량 측정의 여러 방법 중에서 어휘부(lexicon)에서의 최소대립어(minimal pair)의 수를 세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한국어 모음간의 음운대립의 기능부담량-즉 대립의 이용정도-을 측정하고자 한다. 이 방법은 대립이 소실되었을 때 일어날 혼란의 정도를 다른 측정방법보다 잘 보여줄 것이며, 이 분석결과는 한국어 모음대립의 양적인 측면을 잘 나타낼 것이다.

본고는 또한 대립의 양적인 특성이 다른 요인과 함께 음운합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. 최소대립어의 수는 이 대립이 소실(합류)되었을 때 얼마나 혼동이 일어날 것인지를, 다시 말해 얼마나 동음이의어가 증가할 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기능부담량이 클수록 그 대립을 유지할 필요성도 커지며, 기능부담량이 작을수록 합류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.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말의 음운변화 중 가장 현저한 변화인 모음 / ㅞ/와 / ㅟ/의 합류를 기능부담량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.

2. 모음대립의 기능부담량

2.1 분석방법

모음대립의 기능부담량은 KBS 편저 <한국어 발음대사전(1993)>의 올림말 65,291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, 모음간의 최소대립어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. 분석은 Visual-C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BM 호환 컴퓨터로 수행하였다. 모음대립쌍은 8개의 단순모음의 대립쌍 28개와 / ㅞ/와 / ㅟ/가 합류된 모음 ㅞ/ ㅟ와 다른 6모음을 비교한 대립쌍 6개, 그리고 ㅣ:긔 및 ㅜ:게로서, 합계 36개의 대립쌍을 장단의 대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. 장단의 대립이 없는 경우도 측정하는 것은 ㅞ: ㅟ의 대립이 합류된 세대에서는 장단도 음운대립을 이루지 않으므로 장단대립이 없는 쪽이 7모음체계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.

2.2 분석결과

다음의 <표-1>은 65,291개의 올림말을 분석한 결과를 기능부담량(최소대립어의 수)이 작은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. 괄호 안은 최소대립어의 수를 올림말의 수(65,291)로 나눈 후 1,000을 곱한 값이다. <표-2>는 분석결과를 가나다순으로 나열한 것으로, 합계는 그 모음이 다른 모음과 이루는 최소대립어의 수를 더한 값이다.(ㄱ/ㄱ과의 대립은 포함하지 않은 값이다.)

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가장 많은 대립을 이루는 모음쌍은 ㅏ: ㅓ로 2,033개이며, 모음/ ㅏ는 전체적으로 다른 모음과의 최소대립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모음 /ㅓ/가 다른 모음과 최소대립어를 이루는 수치가 매우 낮은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.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데 아마도 한국어에서 /ㅓ/가 약음소로서 이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(김차균(1982)). 또한 /ㄱ/도 다른 모음과 그다지 대립을 이루지 않음을 알 수 있다. 그 중 ㄱ: ㅓ의 최소대립어는 197개로 나타났으나, '개으름/개으름, 매속하다/매속하다, 해죽대다/해죽대다'와 같이 음성상징에 있어서 어감의 차이를 상실한 단어를 제외하면 그 수는 약 160개 정도로 줄어든다.

<표 1 - 크기순>

대립쌍	장단대립		대립쌍	장단대립	
	있음	없음		있음	없음
ㅏ - ㅓ	10 (0.2)	13	ㅡ - ㅏ	585 (9.0)	740
ㅡ - ㅓ	12 (0.2)	18	ㅓ - ㅣ	652(10.0)	817
ㅡ - ㅓ	119 (1.8)	152	ㅓ - ㅏ	775(11.9)	1041
ㅡ - ㅓ/ㅓ	130 (2.0)	164	ㅓ - ㅓ	805(12.3)	1009
ㅣ - ㅓ	143 (2.2)	226	ㅓ/ㅓ - ㅓ	849(13.0)	1102
ㅓ - ㅓ	197 (3.0)	264	ㅓ - ㅓ	886(13.6)	1110
ㅓ - ㅓ	206 (3.2)	280	ㅓ - ㅣ	958(14.7)	1129
ㅡ - ㅓ	228 (3.5)	300	ㅓ - ㅣ	1084(16.6)	1307
ㅡ - ㅣ	248 (3.8)	294	ㅓ/ㅓ - ㅓ	1086(16.6)	1327
ㅡ - ㅓ	300 (4.6)	373	ㅓ/ㅓ - ㅓ	1094(16.8)	1380
ㅓ - ㅓ	343 (5.3)	421	ㅓ - ㅓ	1166(17.9)	1398
ㅓ - ㅓ	372 (5.7)	447	ㅓ - ㅣ	1214(18.6)	1455
ㅓ - ㅓ	344 (5.3)	468	ㅓ/ㅓ - ㅣ	1217(18.6)	1459
ㅓ - ㅓ	358 (5.5)	477	ㅓ - ㅓ	1378(21.1)	1610
ㅡ - ㅓ	382 (5.9)	521	ㅓ - ㅣ	1346(20.6)	1645
ㅓ - ㅣ	431 (6.6)	499	ㅓ - ㅓ	1663(25.5)	1958
ㅓ/ㅓ - ㅓ	512 (7.8)	684	ㅓ - ㅓ	1726(26.4)	2102
ㅓ - ㅓ	534 (8.2)	718	ㅓ - ㅓ	2033(31.1)	2398

<표 2 - 가나다 순>

대립쌍	장단대립		대립쌍	장단대립	
	있음	없음		있음	없음
ㅏ - ㅑ	775	1041	ㅑ - ㅓ	775	1041
ㅏ - ㅕ	2033	2398	ㅑ - ㅗ	344	468
ㅏ - ㅓ	372	447	ㅑ - ㅛ	197	264
ㅏ - ㅓ/ㅕ	1094	1380	ㅑ - ㅜ	805	1009
ㅏ - ㅗ	1726	2102	ㅑ - ㅠ	534	718
ㅏ - ㅠ	1663	1958	ㅑ - ㅡ	119	152
ㅏ - ㅡ	585	740	ㅑ - ㅣ	652	817
ㅏ - ㅣ	1346	1645			
합 계	8500	10331	합 계	3426	4469
대립쌍	장단대립		대립쌍	장단대립	
	있음	없음		있음	없음
ㅓ - ㅕ	2033	2398	ㅓ - ㅑ	372	447
ㅓ - ㅑ	344	468	ㅓ - ㅓ	197	264
ㅓ - ㅓ	206	280	ㅓ - ㅕ	206	280
ㅓ - ㅓ/ㅕ	512	684	ㅓ - ㅗ	343	421
ㅓ - ㅗ	886	1110	ㅓ - ㅠ	358	477
ㅓ - ㅠ	1166	1398	ㅓ - ㅡ	12	18
ㅓ - ㅡ	382	521	ㅓ - ㅣ	431	499
ㅓ - ㅣ	1084	1307			
합 계	6101	7482	합 계	1919	2406
대립쌍	장단대립		대립쌍	장단대립	
	있음	없음		있음	없음
ㅓ/ㅑ - ㅓ	1094	1380	ㅗ - ㅓ	1726	2102
ㅓ/ㅑ - ㅕ	512	684	ㅗ - ㅑ	805	1009
ㅓ/ㅑ - ㅗ	1086	1327	ㅗ - ㅕ	886	1110
ㅓ/ㅑ - ㅠ	849	1102	ㅗ - ㅓ	343	421
ㅓ/ㅑ - ㅡ	130	164	ㅗ - ㅓ/ㅕ	1086	1327
ㅓ/ㅑ - ㅣ	1217	1459	ㅗ - ㅠ	1378	1610
합 계	4888	6116	ㅗ - ㅡ	300	373
			ㅗ - ㅣ	958	1129
			합 계	6396	9081

대립쌍	장단대립		대립쌍	장단대립	
	있음	없음		있음	없음
니 - 게	10	13	기 - ㄱ	143	226
ㄷ - ㅏ	1663	1958	ㅡ - ㅏ	585	740
ㄷ - ㅓ	534	718	ㅡ - ㅓ	119	152
ㄷ - ㅑ	1166	1398	ㅡ - ㅑ	382	521
ㄷ - ㅕ	358	477	ㅡ - ㅕ	12	18
ㄷ - ㅛ/ㅜ	849	1102	ㅡ - ㅛ/ㅜ	130	164
ㄷ - ㅝ	1378	1610	ㅡ - ㅝ	300	373
ㄷ - ㅡ	228	300	ㅡ - ㅓ	228	300
ㄷ - ㅣ	1214	1455	ㅡ - ㅣ	248	294
합 계	6541	9018	합 계	1874	2398
대립쌍	장단대립				
	있음	없음			
ㅣ - ㅏ	1346	1645			
ㅣ - ㅓ	652	817			
ㅣ - ㅑ	1084	1307			
ㅣ - ㅕ	431	499			
ㅣ - ㅛ/ㅜ	1217	1459			
ㅣ - ㅝ	958	1129			
ㅣ - ㅓ	1214	1455			
ㅣ - ㅑ	143	226			
ㅣ - ㅡ	248	294			
합 계	5933	7146			

3. 한국어 모음변화와 기능부담량

음운변화는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 보다는 여러 원인이 얽혀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. 언어변화의 언어외적요인으로는 다른 언어(방언)와의 접촉 및 생리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으며, 언어내적요인으로는 언어(모음)체계의 구조적 압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.

현재 진행중인 서울말의 음운변화 중 가장 현저한 변화는 모음/ㅛ/와 /ㅜ/의 합류이다. 이현복(1971)은 서울말의 모음체계를 30세 이상과 30세 이하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30세 이하의 모음체계에서는 ε와 e의 합류로 개구도가 한단계 줄어들었음을 지적했다.

<표-3 서울말의 모음체계 : 이현복(1971)>

	<30세 이상>				<30세 이하>				
	전설	후설		전설	후설				
	평순	원순	평순	원순	평순	원순	평순	원순	
폐	i	y	ɯ	u	고	i	y	ɯ	u
반폐	e	ø	ə	o	중	E	ø	Λ	o
반개	ε		Λ		저		a		
개		a							

20년 후에 이루어진 홍연숙(1991)에서는 사회언어학적인 실험을 통해 45세를 전후로 모음체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, 두 모음의 합류는 / ㅟ/가 상승하기 시작한 1950년대 부터, / ㅟ/와 / ㅢ/가 대립을 이루지 않는 경상(동남)방언과 전라(서남)방언의 구사자들이 대폭 서울지역으로 유입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. 이기문(1972:229)도 / ㅟ/와 / ㅢ/의 합류를 지적하면서 주로 동남 방언(및 서남방언)의 영향인 듯하다고 하였다.

이과 같이 방언의 영향(동남방언과 서남방언)을 / ㅟ/와 / ㅢ/의 합류의 언어외적요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, 방언의 영향뿐 아니라 서울말의 언어내적인 구조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 이게 되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. 즉, 한 언어에서 언어변화는 그 언어의 변화방 향과 일치하는 외적자극은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. 또한 동남방언 및 서남방언에서도 역사적으로 후설이중모음/ ㅟ/와 / ㅢ/가 전설단모음화를 거친 후에 다시 합류하였음을 볼 때 이 합류의 경향은 음운체계속에 내재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

언어내적인 요인으로는 모음체계의 압력과 두 모음대립의 기능부담량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내적 요인이 두 모음의 합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.

< 8 모음체계 >

ㅟ	—	ㅢ
	ㅟ	ㅢ
	ㅟ	

< 7 모음체계 >

ㅟ/ㅢ	—	ㅢ
	ㅟ/ㅢ	ㅢ
	ㅟ	

<표 3>의 30세 이상의 모음체계에서처럼, / ㅟ/와 / ㅢ/가 별개의 모음인 체계에서는 개 구도가 음성적으로 폐/반폐/반개/개의 4단계를 이룬다. 따라서 전설에서는 모음간의 음성 적 간격이 후설에 비해 좁으며(후설은 고/중/저의 3단계), 변별 자질도 7모음체계에 비 해서 하나 더 설정할 필요가 생긴다. 그러므로 이런 모음체계에는 ㅟ: ㅢ에만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반폐/반개의 두 자질을 두 모음의 합류에 의해 [중]이라는 하나의 자질로 통합 하여 7모음체계로 변화해 갈 구조적인 압력이 내재하고 있다고 가정 할 수 있을 것이다.

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압력만으로는 합류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. 이런 구조적인 압력과 함께 / ㅟ/와 / ㅢ/의 대립이 매우 적음도 합류의 원인이 될 것이다. 즉 ㅟ: ㅢ의 대립

이 합류(merge)되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의사소통에서의 혼란이 적으며 따라서 합류에 저항하는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. ㄹ/ㄴ로 합류되었을 때 생겨나는 동음이의어는 197개이나 이 수치는 많다고 볼 수 없다.

동음이의어는 모든 언어에 어느 정도는 있으며, 이 발음사전에는 3,058개의 한자어 동음이의어 쌍과 866개의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음이의어 쌍이 있다. 발음사전의 편찬 원칙상 고유어의 동음이의어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의 동음이의어의 수는 더 많아진다. 이상억(1990:332)에 의하면 이희승 편 <국어대사전>에서 임의추출한 4,370어항 가운데 약 25%에 해당하는 1,096어항이 몇개씩의 완전동음이의어를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다. 발음사전에 나타난 동음이의어의 비율이 6%정도(고유어의 동음이의어는 제외된 결과지만)인데 비해 이상억(1990)에서 그 비율이 25%에 달하는 것은 분석대상의 차이로 보인다. 올림말이 많아질수록 동음이의어의 비율도 높아짐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이상억(1990)은 이희승 편 <국어대사전>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동음이의어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. 참고로 본고의 한자어 동음이의어 3,058개중 /ㄴ/를 포함한 올림말은 1,293개(2,856단어), /ㄹ/가 170개(382단어), /ㄹ/가 362개(800단어), /ㅡ/가 114개(241단어)인데, 여기에 197개 정도의 동음이의어가 추가되더라도 언어체계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또한 텍스트에 이용되는 모음의 빈도를 보더라도 /ㄹ/는 전체모음의 5.3%, /ㄹ/는 4%정도로 8개의 단순모음 중 가장 빈도가 낮은 두 모음(진남택(1992:27))이며, 이 발음사전에서의 빈도에서도 /ㄹ/는 전체 단순모음의 6.2%, /ㄹ/는 3.8%인데 이런 점도 두 모음의 합류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.

그러나 기능부담량만으로 합류의 방향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.(King(1967a)) 예를 들면 ㄹ:ㅡ의 대립은 최소대립어를 거의 형성하지 않음(12개)에도 불구하고 합류하지 않았다. 이와 같이 기능부담량은 언어의 내적구조를 보여주는 한 지표이지만 언어체계속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 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4. 맺음말

지금까지 한국어 모음대립의 내적 구조를 최소대립어를 세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. 이를 통해 한국어 모음대립의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내적 특성이 모음체계의 압력과 함께 음운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.

〈참고문헌〉

- 김차균(1982), 국어의 약음소들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과정들의 연구, 논문집
(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) 9.2
- 문교부(1955),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짓기조사, 문교부
- 李基文(1972), 國語史概說, 塔出版社, 서울
- 이상억(1989), 計量言語學(語彙論 部分) : 語彙部の 音韻.形態.意味論的 構造,
언어 11-2호, 한국언어학회
- 이상억(1990a). "국어 어휘부의 계량언어학적 연구", 강신항 선생 기념논문집
- 이현복(1971), 서울말의 母音體系, 語學研究7-2
- 이현복(1989), 한국어의 표준발음, 성도인쇄문화사, 서울
- 진남택(1992), 한국어 음소의 기능부담량과 음소연쇄에 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,
서울대 석사학위논문
- 한국방송공사(1993), 한국어 발음 대사전, 어문각
- 허 응(1985), 국어음운학-우리말 소리의 오늘.어제-, 샘문화사, 서울
- 홍연숙(1991), 서울말과 평양말에 있어서 전설모음의 합병여부와 겹받침의 발음 :
수량분석적 접근 방법, KBS 한국어연구회
- 岩田(1978), 音韻變化と音素(形態素)の頻度 - 中國語の捲舌音をめぐって, 東京大學
言語學論集 1
- Chen, M. & Wang, W.(1975), Sound Chang : Actuation and Implementation,
Language v.51,
- King, Robert D.(1967a), A Measure For Functional Load, Studia Linguistica
- King, Robert D.(1967b), Functional Load and Sound Change, Language v.43
- Meyerstein, R.S.(1970), Functional Load, Janua Linguarum Series Minor 99, Mouton,
Hague